

김진성 좋아리 근육 파열 갈 길 바쁜 NC 뒷문 비상

재활기간 5~6주 전망...약제의 연속



점점산중이다. NC 마
무리투수 김진성(30·사
진)이 오른 좋아리 근육
파열로 전력에서 이탈
했다. 안 되는 집에 더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

NC 관계자는 27일 "김진성이 26일 마산 LG전
에서 9회 공을 던지고 난 뒤 오른 좋아리 통증을 느
껴 교체됐다"며 "27일 오전 경남 창원외 한 병원에서
검진 받은 결과 좋아리근육(비복근)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활기간은 5~6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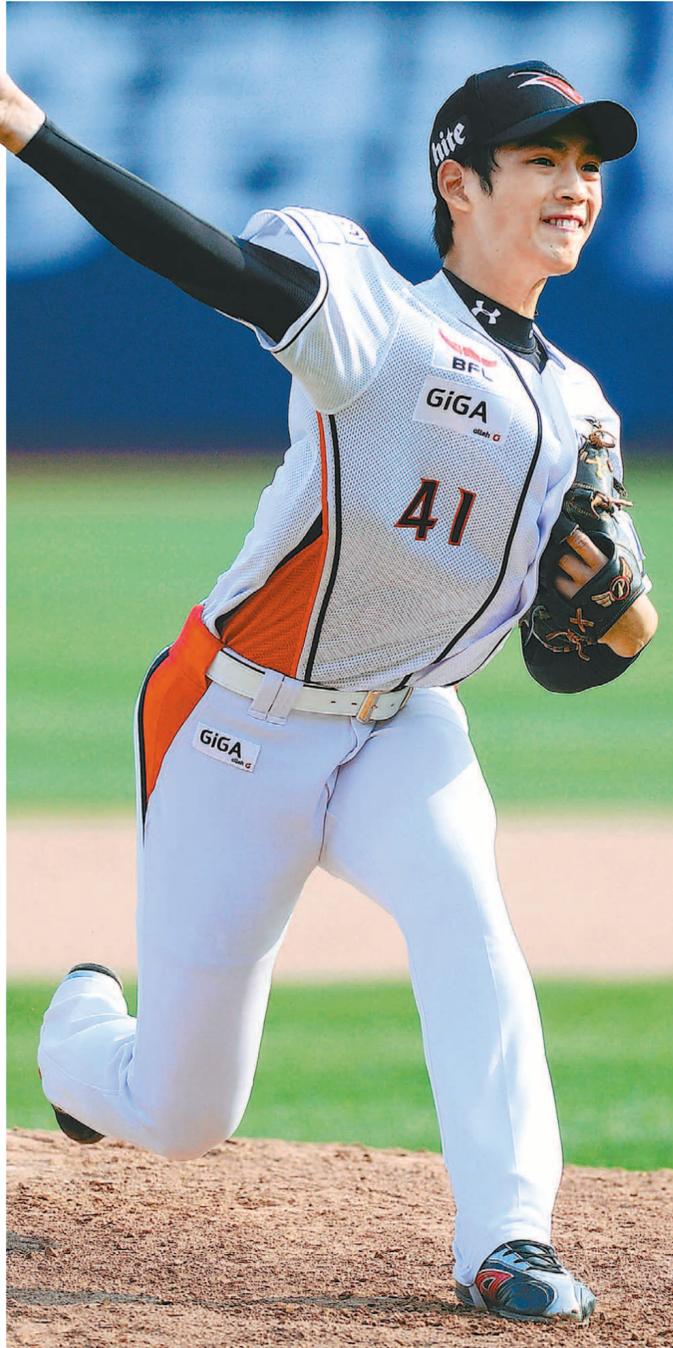
김진성은 이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앞으
로 창원시 진해에 있는 재활파트에서 재활치료를
할 예정이며, 마산 홈경기가 있을 때는 1군 선수단
과 함께 움직인다. 김진성을 대신해 1군 엔트리에
등용될 선수는 28일 밝혀 예정이다.

NC에게 시즌 초반은 잔인하다. 설 없이 약제가
겹치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핵심 셋업맨 원종현
이 전력에서 빠져나갔고, 임창민 손정욱 등도 개막
전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불펜이 얼
거운 상태에서 제몫을 해줘야할 선발진마저 흔들
리며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럴 때 터져
줘야 할 타자들도 집단 슬럼프에 빠졌다. 여기에
김진성마저 다쳤다. 그는 지난해 수호신으로 활약
하며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다. 3승3패, 25세
이브, 1홀드, 방어율 4.10의 뛰어난 성적으로 뒷문
을 든든히 지켰다. 올해도 8경기에 등판해 3세이
브, 방어율 0.00으로 한층 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김진성이 26일 마산 LG전에서 2-7로 뒤진 9회
등판한 건 최근 NC가 부진하면서 세이브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해서였다. 컨디션 점검차 마운드에 올
랐지만 첫 타자 김용의를 상대하다가 오른 좋아리
에 통증을 호소했다. 질뚱거리며 마운드를 내려간
그는 결국 근육 파열로 한 달 넘게 재활을 해야 한
다는 결과를 받아들였다.

김진성마저 빠져나간 NC는 가장 큰 위기에 봉
착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kt 안상빈에게서 임창용의 향기가 난다



155km 파이어볼러 유망주 화제

데뷔전 2이닝 1안타 1볼넷 인상적 투구
사이드암서 스리쿼터로...제구·구속 UP
직구·슬라이더가 일품 "롤 모델 임창용"

시속 150km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는 어느
구단에게나 매력적인 법이다. 하물며 20세의
약관이라면 미래가치는 더욱 치솟는다. 설사
제구력이 잡히지 않은 '미완의 대기'일지라도
말이다. 주인공은 kt 오른손투수 안상빈(22)
이다. 스프링캠프에서 155km를 던지며 새
시즌을 기대케 했던 그가 24일 수원 넥센전에
서 마침내 1군 데뷔전을 치렀다. 2이닝 1안타
1볼넷 1실점(비자책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남기며 무너진 kt 불펜의 한 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직구 최고 구속은 152km
였다.

●제구 잡으려 택한 변화에 구속도 UP

안상빈은 본래 고교 시절까지 사이드암 투
수였다. 야구를 시작한 내덕초등학교 시절부
터 줄곧 투수를 맡아왔다. 청주중에 진학해
사이드암으로 전환, 세광고에서 에이스로 우
뚝 솟았다. 당시만 해도 187cm의 큰 키에, 몸
무게 80kg를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140km 중후반의 공에 상대 타선은 맥없이 물
러났다. 그만큼 직구가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제구가 문제였다. 작년
신인 2차 지명 4라운드에서 지명돼 kt에 입단하
면서 제구력을 잡기 위해 신경을 쏟아 부었

다. 하체 강화 훈련과 함께 투구폼을 조금씩
수정했다. 교정은 1년 내내 이어졌다. 팔꿈치
를 올리면서 지금과 같은 스리쿼터형으로 바
뀌었다.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31경기에 출
전해 2세이브, 방어율 7.34(30.2이닝 25자책
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을 넘어가
면서 '감'을 찾았다. 7월 이후 9경기에서 11이
닝 1실점(비자책점)으로 방어율 0.00, 2세이
브도 이때 거둔 수확이었다. 덩달아 구속도
늘었다. 최고 150km 중반의 공을 던지는 '파
이어볼러'가 됐다.

●롤 모델은 임창용

"롤 모델은 임창용(39·삼성) 선배님입니다."
사이드암 시절부터 줄곧 꿈꿔온 역할 모델
은 임창용이다. 임창용은 사이드암으로 프로
야구를 평정한 최고의 투수이기도 하다. 150km
이상의 직구와 슬라이더가 일품. 안상빈도 직
구와 슬라이더를 축으로 체인지업을 더했
다. 제구가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힘이 있는
직구 위주의 승부를 펼친다. 26일 넥센전에서
도 1.2이닝 1안타 1볼넷 2삼진 무실점으로 호
투했는데, 첫 7개의 공이 모두 직구였다. 총
24개의 투구 가운데 변화구(슬라이더)는 단
4개에 불과했다.

비슷한 점은 또 있다. 팔 높낮이를 조절할
줄 안다. 임창용이 평소 사이드암 투구를 하
면서도 상황에 맞게 팔을 높여 강한 공을 던
지는 모습과 같다. 안상빈은 "결정구를 던질
때는 팔 높이를 달리해서 던진다"고 말했다.
아직은 임창용의 위력에 버금갈 수 없지만 몇
년 뒤에는 이를 석자를 당당하게 내건다는 각
오로 뜨겁다.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 kt 안상빈이 제2의 임창용을 목표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아직 미완의 대기지만, 시속 150km의 빠른 공
에 팔 높이를 조절해 던지는 투구 스타일까지 롤모델인 임창용과 닮았다. 수원 | 김용현 기자 won@donga.com

테니스 정현, 서배너 챌린저 우승...세계 88위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19·상지대)이 27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
니스(ATP) 서배너 챌린저 대회 단식 결승에서 세
계랭킹 169위 제임스 맥기(28·아일랜드)를
2-0(6-3 6-2)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80점을 획득한 정현은 경기
후 발표된 세계랭킹 8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남자 선수가 세계랭킹 100위 안에 든 것은 이영택
(39) 이후 15년만에 두 번째다.

추신수 4타수 무안타...5경기째 침묵

텍사스 추신수(33·사진)가
5경기째 침묵했다. 추신수는
27일(한국시간) 애인즈스타디
움에서 열린 LA 애인즈스타
의 원정경기에서 7번 우익수로
선발출장했지만 볼넷 1개와 몸에 맞는 볼 1개
로 두 차례 출루했을 뿐 나머지 타석에서 4타
수 무안타에 그쳤다. 21일 애리조나전부터 무
안타를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04
(48타수 5안타)로 낮아졌다. 한편 피츠버그
강정호는 3연속경기 결정했다.

삼성, 홈 6연전 '야구는 내 친구' 이벤트

삼성이 28일부터 시작되는 LG·두산과의 홈
6연전 동안 '야구는 내 친구' 주간 이벤트를
연다. 28일에는 적십자와 연계한 응급처치
시연 및 후원회원 유치 캠페인이 광장에서
펼쳐진다. 29일과 30일에는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즉석사진 포토존을 운영하면
서 사회복지 4행시 작성 등 이벤트가 진행된
다. 5월 1~2일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위터 4 차일드' 캠페인을 통해 재단 소개, 희
망메시지 부착, 후원회원 모집 등을 할 계획
이다.

배구협회장에 박승수 대행 선출

대의원 12표 중 7표...1년 반 잔여임기 수행



우여곡절을 겪었던 제37대 대
한배구협회 신임 회장에 박승수
(사진) 현 협회장 직무대행 및
9인제배구연맹 회장이 선출됐
다. 전임 임태희 회장이 "한국배
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며
지난해 10월 22일 사퇴한 이후 6개월의 공백 끝에
대한배구협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이 결정된
것이다.

박 신임 회장은 27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임시대의원총
회에서 대의원 12표 가운데 7표를 얻어 신장용 현
한국중고연맹 회장(5표)을 눌렀다. 그동안 2차례
벌어진 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였던 김성희 한국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김인원 법무법인 서울센트
럴 대표를 과반수 득표 미달로 탈락시킨 대의원들
은 "평생을 배구로 살아왔다"는 원로에게 1년 반
의 회장 잔여임기를 안겼다.

임시대의원총회는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의
원 17명과 대한배구협회 산하 6개 연맹 대의원 6명
등 총원 2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 간신히 성원(과
반수)을 채웠다. 노장용 초동배구연맹 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된 회장 선출은 5분간의 후보자
정견발표 이후 투표로 이어졌다.

박 신임 회장은 "이제 배구인으로서 할 만큼은
했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 더 이상의 욕심은 없다.
배구발전을 위해 배구원로, 대의원들과 협의해서
좋은 분을 새로운 회장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겠
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더라도 좋은 분이 나
오면 회장직을 물러나겠다. 현 집행부는 모두 교체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 "한국이 봉이냐" 국제 배구계에 보내는 KOVO의 메시지

V리그 레이다 | 여자배구 용병 트라이아웃 강행 '3가지 이유'

- 2 물땀 대신 한국형 배구 개발 필요성
- 3 줄어든 비용으로 유소년 육성 투자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29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2015~2016시즌
V리그에서 활약할 여자 외국인선수를 선발한
다. 탈도 많고 탈도 많은 트라이아웃이지만
되로는 없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여
사부 6개 구단은 선택한 선수가 다음 시즌 부상
이나 중도 탈락 없이 끝까지 제대로 해주기만
을 바랄 뿐이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여전히 팬들은 트라이아웃을 반대한다. 급
이 떨어지는 외국인선수가 리그의 수준을 떨
어트릴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안젤로 가빈
레오가 삼성화재 입단 당시 무명선수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감독과 토종 선수, 구단
이 이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키고 진정한 동료
로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위 순번과 하위 순번 선수들의 격차가 적고
각 구단이 원하는 선수를 한 명씩 뽑아갈 정
도로 충분한 인원이 참가한다면 구단의 불만
도 누그러질 것이다. 유사시 대체선수를 어떻
게 할 것인지의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지만 K
OVO는 트라이아웃을 강행한다.

●KOVO는 국제 배구계에 메시지를 주고 싶어한다

현재 국제 배구계에서 V리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트라이아웃 강행
의 첫 번째 이유다. 한국 구단들은 국제 배구
시장에서 봉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난 시
즌 어느 여자구단은 외국인선수에게 100만
달러를 썼다. 국내선수 전체 연봉 수준이다.
그 선수가 자국리그에서 받은 실제 연봉은
3분의1 정도였다. 물론 100만 달러가 그 선수
의 계약로 가지 않았다. 관련 협회, 몇몇 에이
전트 등 중간마진이 상상외로 많았다.

요즘 어지간한 외국인선수는 한국에서 제안
이 오면 3~4배씩 연봉을 올려서 부른다. V리
그행 소문이 나도는 남자부 무소스키는 200만
달러, 소콜로프도 150만 달러 이상을 요구했
다는 소문만 들린다. 이들은 이적료도 만만치
않다. 현재 KOVO의 연봉상한선은 28만 달
라다.

V리그를 만만하게 보는 국제 배구계의 시
각을 바꾸지 않은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구단에게 자율로 맡겨서는 답이 없
다고 KOVO는 판단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
더라도 V리그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노력하지 않는 감독 구단에게 주는 메시지

KOVO는 여자 배구구단과 감독들에게도 메
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 외국인선수에게만 모
든 것을 걸지 말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한국형



외국인선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에 한국형 배
구가 죽어가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KOVO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2014-15시즌 NH
농협 V리그 정규리그에서 이효희와 공동 MVP에
올른 도로공사사의 니콜(가운데)이 스파이크를 날리
는 모습. 스포츠동아 DB

배구를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다. 지난 12일 벌
어졌던 한일타매치 경기는 V리그 여자부의
문제점을 잘 보여줬다. 일본 NEC 선수들은
한국 챔피언인 IBK기업은행 선수들보다 키
도 작고 외국인선수도 뛰지 않았지만 압도적
기량을 발휘했다. 그들의 블로킹은 키와 관계
없었다. 공격도 높이와 힘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지적계 들어왔던 조직력에서 NEC의 배구
는 저만치 앞서 있었다. 어느 배구인은 "그들

안 대부분 구단과 감독들이 외국인선수에만
모든 것을 걸었지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노
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갈수록 배구
는 단순해지고 우리 선수들의 기량은 늘지 않
는다. 외국인선수 하나에 팀 운명을 거는 배
구를 하고 있다. 리그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됐는데 국제대회에서 잘 할 수도 없다. 지금
은 김연경 덕분에 그러저럭 가졌지만 김연경
이 없으면 해답도 없다"고 지적했다.

'물땀' 대신 우리나라 선수들을 충분히 이
용하는 한국형 배구는 새로운 것도 아니다.
외국인선수 제도가 없던 때에는 한국배구를
버티게 하는 것은 기술이었다. 우리 선수들에
게 자극을 주고 감독과 구단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싶은 트라이아웃이다.

●유소년 배구 육성을 위한 약속을 잊지말자

갈수록 초중고 배구 수마수는 줄어들고 있
다.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은 다른 스포츠에
빠앗긴지 오래다. KOVO는 외국인선수에게
몰아줬던 비용을 줄여서 유소년 꿈나무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쓰겠다는 생각이다. 조만간 이
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각 구단에 연
고학교를 배정할 뒤 일정 기간 지원한 프로팀
에게는 신인드래프트에서 우선지명권을 주
는 방안을 실행할 것이다. 몇몇 구단이 반대
하면 그 구단은 빼놓고 투자를 하는 구단에
특혜를 줘서라도 유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외국인선수 트라이아
아웃이다. 김용현 전문기자